

재외동포청과 대한적십자사가 손을 맞잡고, 재외동포 긴급구호에 나선다.

- 재외동포청과 대한적십자사 간의 업무협약서 체결 -

이기철 재외동포청장과 신희영 대한적십자사회장은 7.27.(목) 「재외동포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였다.

본 업무협약서는 양 기관이 재외동포를 위한 긴급구호 활동과 인도적 지원 등 재외동포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특히 양 기관은 △해외 대형 재난발생시 재외동포 구호를 위해 협력하고 △재외동포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 아울러 양 기관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일제 강점기에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된 사할린 동포와 그 동반가족이 여생을 고국에서 보낼 수 있도록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영주귀국과 각종 생활정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현지에 잔류한 사할린 동포 1, 2세의 일시 모국 방문을 통해 건강검진과 문화탐방 등을 지원하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하기 위해 귀국 동포 역방문 등 방문지원 사업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 이 외에도 재외동포 원폭피해자의 모국 방문 사업 등 협력 사업도 전개할 예정이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750만 재외동포사회와 연결된 재외동포청이 국제적, 국내적 인도적 지원역량을 가진 대한적십자사와 협업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유로 해외 재난 상황에서 적절한 구호를 받지 못하는 재외동포들에게 신속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그간 소외되어온 우리동포들을 보듬을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재외동포청과 대한적십자사와의 이번 업무협약은 재외동포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는 재외동포청이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신희영 회장은 “재외동포청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각종 재난 등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모국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이로 인해 소속감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 재외동포청과 대한적십자사 간의 업무협약서 서명식 사진. 끝.

담당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과	책임자	과장	최윤선	(032)585-3279
		담당자	사무관	이상급	(032)585-3280
	대한적십자사 국제협력팀	책임자	팀장	김선희	(02)3705-3661
		담당자	담당	김상희	(02)3705-3662